

시즈쿠이시초 역사민속자료관

작지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시즈쿠이시초 역사민속자료관’은 역사, 문화, 전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관내에는 선사시대 출토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 전시에서는 말이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전통적인 주거지인 ‘마가리야(L 자형 주택)’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말이 수송과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료관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물은 구석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유물들은 이 지역에서 발굴된 32,000 년 이상 전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고대인이 수렵 채집과 어로 문화를 영위하던 조몬 시대(기원전 10,000 년~기원전 300 년)의 유물 컬렉션도 있어 토기와 도구를 통해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선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관에는 에도 시대(1603 년~1868 년)부터 쇼와 40 년대(1970 년대) 무렵까지의 의복, 문서, 도구, 일용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시는 깃코오리 직물이라고 불리는 직물의 직조 기법에 관한 전시입니다. 현지에서 재배된 삼으로 원단을 직조하면 원단에 거북이 등껍질 같은 육각형 무늬가 나타나 ‘깃코오리(龜甲織, 귀갑직) 직물’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깃코오리 직물은 시즈쿠이시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지난 세기에는 소멸될 위험에 처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부흥 노력을 통해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관람객은 이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아세하지키’라고 불리는 직물 전시를 통해 전문 공예 기술과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직물이 땀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작업복 아래에 입었습니다.

자료관 옆에 전시되어 있는 농가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가를 이축한 ‘마가리야’입니다. 말 그대로 L 자 모양의 구부러진 집을 의미합니다. 말을 수용하는 마구간과 가족이 사는 안채 사이에 흙바닥으로 된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즈쿠이시 같은 농촌 지대에서 말은 소중한 가족이며, 마구간과 안채를 하나의 건물로 만든 ‘마가리야’ 형식으로 집을 지음으로써 혹독한 겨울 동안에도 말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리야는 100 년 이상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통적인 초가지붕과 이로리 화로가 있습니다. 이로리 화로는 돌을 깔 네모난 구멍으로 그 위에는 냄비와 솥을 매다는 갈고리가 있으며 난방과 조명, 식사 준비에 사용되었습니다.

1950 년대에 일본 정부는 홍수에 대비하여 인근 고쇼 호수에 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퇴거 대상이 된 520 세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포기하는 것에 저항했으며, 1981 년에 고쇼 댐이 완공될 때까지 20 년 넘게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댐의 건설로 인해 소멸해 가는 역사 민속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곳으로 만들고자 ‘시즈쿠이시초 역사민속자료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마가리야가 이축된 것도 이러한 경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